

TV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코모닝A	00 KBS 뉴스광장	00 코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폭풍의 여자>	30 KBC 모닝와이드
8 00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40 지구촌 뉴스	30 생활송 오늘 아침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청담동 스캔들>
9 00 신문이야기 들쭉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일편단심 민들레>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오 50 TV동화 빨간자전거 55 튜트생활체조	40 월화 드라마 <힐러>(재)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1 30 내조의 여왕(재)	00 KBS 네트워크 특선 경남 100경 완전정복 55 시청자 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10 KBC 생활뉴스 30 박시백의 세계유산순례
12 4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55 바른말 고운말		10 MBC 정오 뉴스 20 통일 전망대	00 SBS12뉴스 45 닥터 365 55 씨네 포트(재)
1 40 김부장의 뉴스통	00 중계방송 임시국회 긴급현안질의	00 영마의 탄생(재)	00 MBC 네트워크 특선 120가지의 맛을 가진 현우 55 푸라기 식사교실	55 날씨와 생활
2 50 직언직설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 정보통 플러스(재)	25 똑똑 키즈쿨 55 MBC 뉴스	0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3	00 KBS 뉴스 10 역사저널 그날(재)	00 꼬마신랑 콩도령(재) 30 자동 공부책상 위기	05 헬로키즈 틀루랄라 공룡여행(재) 55 내사랑 똥	00 SBS 뉴스 10 푸라기 탐구생활 스페셜
4 00 정오권의 시사방법	00 시사진단 55 튜트 생활 체조(재)	00 TV유치원 콩다콩 30 두리둥실 공개공방2(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	00 꿈의 라이브 프리즘 스톤 30 변신자동차 도박
5 00 하중대의 쾌도난마	00 KBS 뉴스 5 20 동물 세계 40 남도 지오 그래픽	00 외계가족 줄리폴리 20 인간극장 스페셜(재)	00 MBC이브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지녁뉴스 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0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6시 내강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생생 정보통	10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365 10 KBC생방송 투데이
7 20 닥터 지 바고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우기	50 일일드라마 <달콤한 비밀>	15 일일연속극 <소원을 말해봐>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저널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달라달라 장미>
8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	25 일일연속극 <당신만이 내 사랑>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0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 30 리얼스토리 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힐러>	00 월화 특별기획 <오만과 편견>	00 월화 드라마 <편지>
11 00 여변호사가 말한다	00 KBS 뉴스라인 40 TV, 책을 보다	15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청사 53주년 특집 다큐 CCTV공체작 <기후의 반란 2부 부산>	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12 10 지구의 경고, 워이드 웨더 ①:20 먹거리 X파일(재)	20 T 타임 50 일약특목 ①:10 다류 공감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해외걸작드라마 <아일랜드-신성 모독> ①:35 특파원 현장보고(재)	15 MBC 뉴스24 45 빛나는 세상 스페셜 ①:45 비비빅-이루마의 TV 예술무대	35 나이트 라인 ①:05 테마스페셜



‘편지’, 월화극 1위 ‘오만과 편견’에 도전장

기자를 내세운 드라마가 잇달아 선보이더니 이번에는 검사를 내세운 드라마가 맞대결을 펼친다. 월화극 1위를 달리고 있는 MBC TV ‘오만과 편견’에 SBS TV ‘편지’가 15일 도전장을 내민다.

◇조선 최고 무사, 11년 만에 노획한 검사를 만나다=영화 ‘청풍명월’은 인조반정을 배경으로 한 액션 사극, 엘리트 무관 양성수 ‘청풍명월’에서 최고의 검객으로 꼽히는 지환과 규영을 최민수와 조재현이 각각 연기했다. 생사를 함께 하자는 우정의 맹세를 나눴던 지환과 규영은 그러나 인조반정으로 적으로 돌아서게 되고, 지금보다 각기 열한살 젊었던 최민수와 조재현은 지환과 규영의 목숨을 건 검술 대결을 위해 화려한 액션 연기를 펼쳤다. 그랬던 두 배우가 이제는 ‘지천명’의 나이가 되어 노획한 검사로 다시 일합을 겨루게 됐다.

시간이 흐르만큼 이들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아니다. ‘오만과 편견’이나 ‘편지’가 내세운 ‘젊은 배우’는 따로 있다. 최진혁과 김래원이 각각 극의 중심에 놓여있다. 최민수와 조재현은 그 젊은 배우들의 뒤에 딱하니 버티고 서 있는 거대한 벽으로 등장한다. 둘다 산전수전에 공중전까지 치른 노획한 검사 역이다. 최민수는 속안여 구영이 아홉마리가 도사린 문희만 부장검사를, 조재현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권력만을 목표로 질주하다 마침내 검찰총장에게 오르는 이태준을 각각 연기한다.

두 배우 모두 극을 끌어가는 주인공은 아니지만 주인공을 무색하게 만드는 존재감과 카리스마로 긴장감을 조성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실제로 최민수는 이미 ‘오만과 편견’에서 그런 역할을 해내고 있다. 야망에 불타 동아출을 걷기 위해서라면 워든 할 태세지만, 아직 발목까지 썩지는 않아 때때로 ‘번뇌’한 것을 하는 문화만 부장검사는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어 주인공 구동지(최진혁)를 검사도, 시청자도 헷갈리게 하는 힘이 있다.

최민수 자신도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머리 싸매고 고민해본 적이”라고 토로했다.

또 “최민수는 상대하는 인물이 바뀔 때마다 팔색초처럼 달라지는 캐릭터이자, 굉장히 모호한 캐릭터”라며 “순수하고 간고한 면을 늘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물을 분석하려니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말했다.

조재현은 이미 세포 하나까지 권력욕에 불타오르는 부패한 검사 이태준을 맡았다. 노선이 선명한 구약 검사다. 책 한권 살 돈 없는 집에서 태어난 이태준은 서울직장까지 올랐지만 만족할 수 없기에 더 높은 곳을 향해 질주한다.

제작진은 “이태준은 사람 좋은 표정을 하면서도 앞을

막는 수심 넘 검사의 웃을 벗겼고, 걸어온 발자국마다 비리와 불법으로 점철되어온 삶”이라고 설명했다.

이태준은 마침내 검찰총장 자리까지 오른다. 하지만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려는 차, 자신의 심복이었던 박정훈(김래원) 검사가 돌변해 발목을 잡으니 환장할 노릇이다.

‘편지’의 이명우 PD는 “조재현은 이태준 그 자체다. 진실과 욕망을 숨기는 ‘천의 얼굴’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시 검사=그래도 검사=의사만큼 드라마에 많이 등장하는 직업이 바로 검사. 그만큼 시청자는 가지각색 캐릭터의 검사를 지극히 좋아했다.

정의로움 검사와 부패한 검사, 기계적인 검사와 비겁한 검사는 이미 흔하게 보아왔고, 또 꿈이 드라마가 아니어도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다. 의학 드라마가 더 이상 새롭지 않듯, 검사 드라마도 처음부터 이러한 한계를 안고 출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의사와 검사가 드라마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극적인 이야기를 끌어낼 여지가 많기 때문. 시청자는 의사에게 ‘신의 손길’을, 검사에게 ‘정의의 손길’을 기대하는 것이다.

현실은 비록 그렇지 않더라도, 아니 오히려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드라마에서도 한층 더 기적과 굳건한 양심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다.

제작진은 바로 그러한 시청자의 기대를 붙잡고 같은 검사 이야기도 캐릭터 플레이와 스토리 라인을 어떻게 뽐아 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드라마를 만든다.

‘오만과 편견’은 이미 시청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검사가 되어야 하는 절박한 동기를 가진 구동지-한열무를 중심으로 과거의 미제 사건과 오늘의 부패한 검찰 기득권 간의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인물들의 여정이 매화 흥미를 자아내고 있다.

이현주 작가는 곳곳에 반전을 숨겨놓은 촘촘한 구성과 현실을 날카롭게 패러디하고 꼬집는 이야기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편지’는 ‘추적자’로 안방극장에 파란을 일으킨 뒤 ‘황금의 제국’으로 2연타석 히트를 친 박경수 작가의 신작이라는 점에서 시작 전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제작진에서 거대한 권력과 거대한 부의 세계를 파헤치며 마치 다큐 같은 현실감과 목적인 필력을 과시했던 박 작가가 이번에도 솜씨를 발휘할 것인지 궁금하게 하고 있다.

‘편지’의 이명우 PD는 ‘오만과 편견’을 의식해 “검찰이라는 공간이 같을 뿐이지 추구하는 바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 우리 드라마는 인간의 욕망과 사랑, 배신, 믿음이런 것들이 씨줄과 날줄로 엮이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 (부모광장)	14:30 부릉! 부릉! 브루미즈	18:00 생방송 토틈! 보니하니
05:40 나의 성공비결	10:10 EBS 특강	14:45 코코몽2	19:00 지피티지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0:40 최고의 요리비결	15:00 신나는 요정 학교	19:30 EBS뉴스
07:00 코코몽(재)	11: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15 지구를 지켜라	19:50 일일극장 (아빠와 사춘기)
07:15 놀이터 구조대 뽀잉(재)	11:20 세계테마기행 <사위디 갈! 태국>(재)	15:30 올리비아	20:40 다류 오늘
07:30 풍선 코끼리 발루보(재)	12:00 EBS 뉴스	15:50 피터 래빗	20:50 세계테마기행 <영혼의 섬, 플로레스>
07:45 꼬마버스 타요(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재)	16:00 당동영 유치원(재)	21:30 한국기행 (순천만)
08:00 당동영 유치원	13:05 시사채널E	16:20 놀이터 구조대, 뽀잉	21:50 EBS 다큐프라임 <원령공주의 땅 아쿠시마>
08:20 두다다콩(재)	13:10 생활백화	16:35 오스카의 오아시스	22:35 세계 걸문록 아틀라스
08:35 방귀대장 뽕뽕이	13:40 출가선 수학 EBS MATH	16:45 공피와 친구들(재)	24:05 지식채널e(재)
08:50 공피와 친구들	13:50 사이틴(Sci-teen)	17:00 방귀대장 뽕뽕이(재)	24:10 EBS 인문학 특강
09:05 원더 볼츠(재)	14:00 두기 탐험대	17:15 풍선 코끼리 발루보	
09:20 출동 슈퍼강(재)	14:15 유당당탕 아이쿠	17:30 꼬마버스 타요	
09:35 아기 고릴라 동동		17:45 두다다나	

EBS플러스1

00:00 2016 수능일기 <유중현, 윤선명의 국어>	11:4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 문화
01:40 <오광석의 수학 I>	12:10 2016 수능개념 (윤연주의 영어)
02:30 수능길잡이 <수학 I>	13:05 <윤정환의 영어>
03:20 <미적분과 통계기본>	14:00 고등에비과정 (김소연의 수학II)
04:10 <영어독해 구문>	14:50 <주혜연의 영어>
05:00 <영어독해 유형>	15:40 2016 수능일기 <오랜지의 영어>
05:50 <박근영의 미적분 I>	16:30 <유중현, 윤선명의 국어>
06:40 <차현우의 미적분 II>	17:20 <오광석의 수학 I>
07:30 <구명석의 확률과 통계>	18:10 고등에비과정 (장동진의 국어)
08:20 <독서>	19:20 <최은진의 수학 I>
09:10 <주혜연의 영어>	20:00 <김소연의 수학II>
10:00 <장동진의 국어>	20:50 <주혜연의 영어>
10:50 <최은진의 수학 I>	21:50 수능길잡이 <구명석의 확률과 통계>

EBS플러스2

07:00 한국어 능력 시험대비 강좌	16:20 <국어5-2>
07:30 나의 성공비결	16:50 <국어4-2>
08:0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7:20 만명왕 평가문제풀이 <전과목 5-2>
08:30 검정고시 대비강좌	18:00 TV 중학 <수학 1(상)>
09:10 TV 중학 <역사 1>	18:40 <수학 2(상)>
09:50 <수학 1(상)>	19:20 필독 중학 한국사 <국어 3(상)>
10:30 <수학 2(상)>	20:00 EBS 기획특강 <수학 2(상)>
11:00 <수학 2(상)>	20:50 EBS 기획특강 <수학 1(상)>
11:50 <수학 2(상)>	21:40 EBS UCC 공모 나쁘디 <수학 3-2>
12:30 등업산공 <수학 2(상)>	22:00 등업산공 <국어 2(상)>
13:10 <수학 2(상)>	22:40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 <수학 2(상)>
13:50 <수학 2(상)>	23:20 중학e포스 영문본 1 <국어 3-2>
14:30 <수학 2(상)>	24:00 백점공략 <수학 1>
15:20 만명왕 <국어 4-2>	24:30 <국어 4-2>
15:50 <국어 4-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5일(음 10월 24일 庚申)

子	36년생 현대대로 유지하도록 하자. 48년생 복을 받게 될 것이다. 60년생 약진하는 길목에 들어서고 있느니라. 72년생 합리성을 좇는다면 만사가 무탈할 것이다. 84년생 의외로 빨리 처리되는 형국이다. 행운의 숫자 : 76, 65	午	42년생 판세를 확실히 뒤집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54년생 관련사기 없는 것이 상책이다. 66년생 결정적인 시기에 거의 임박했다. 78년생 자신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이다. 행운의 숫자 : 33, 91
丑	37년생 실적을 쌓게 될 것이다. 49년생 현황에 집착하지 말라. 61년생 작은 것을 아끼려다가 매우 소중함을 잃을 수 있다. 73년생 실외에 현혹되다보면 큰일 나는 수가 있다. 85년생 상호적일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55, 85	未	43년생 체계적인 정리가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55년생 주관을 버리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 67년생 손쉽게 처리해도 된다. 79년생 장애물이 제거 되거나 불리한 관계가 해소되는 단계이다. 행운의 숫자 : 38, 34
寅	38년생 부수적인 것은 차치하고 핵심에 집중해야 할 판국이다. 50년생 앞뒤 가리지 말고 모든 면모가 변화해야 한다. 62년생 행하다보면 다른 일에 소홀할 수도 있다. 74년생 좌적의 상태이니 계속 진행하라. 행운의 숫자 : 07, 47	申	44년생 주도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증거대란 시점이다. 56년생 반드시 짓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68년생 협조를 얻어 목표에 진입 하겠다. 80년생 유난히 마음을 끄는 바가 있을 것이니 꼭 접해보라. 행운의 숫자 : 43, 11
卯	39년생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평상심 성과를 거두는 날이다. 51년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실행해야 할 시국이다. 63년생 오판하면 많은 피해가 따른다. 75년생 서두르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16, 71	酉	45년생 근거가 확실하다면 실행해도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57년생 부담스럽다면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낫다. 69년생 가치와 실익의 관점에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81년생 체계적으로 이뤄지게 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20, 62
辰	40년생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할 것이다. 52년생 과감하게 펼쳐 버리고 확실히 벗어나야 한다. 64년생 실정을 보류하고 내실을 기하는 것이 옳다. 76년생 결과적으로 남 좋은 일만 하는 꼴이 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5, 90	戌	46년생 가벼운 언행은 공든 탑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58년생 한계를 일탈하지 않도록 분별해 해둬야겠다. 70년생 영동한 데로 흘러갈 수도 있다. 82년생 주의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행운의 숫자 : 52, 28
巳	41년생 속 뜻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무의미 하느니라. 53년생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면서 진전을 보이는 시기이다. 65년생 이루어질 가능성이 다양한 상황이다. 77년생 역풍이 불어 올 수도 있음을 분별해 알자. 행운의 숫자 : 75, 02	亥	47년생 증거대란 것에 신경 쓰다가 중된 것에 소홀할 할 수다. 59년생 인식을 달리한다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71년생 의미를 표현해야 할 때다. 83년생 열떨결에 피해를 볼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88, 4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가수 신해철 49재... ‘민물 장어의 꿈’ 합창

가수 신해철의 49재가 14일 오후 그의 유해가 안치된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추모관에서 열렸다.

고인의 팬클럽인 ‘철기군’ 주도로 열린 이번 ‘마왕 고(故) 신해철 팬과 함께 하는 49재 추모식’에는 아내 윤원희 씨와 두 자녀 등 유가족과 밴드 넥스트 멤버들, 팬클럽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은 넥스트 보컬 이현섭의 고인 약력 소개로 시작해 팬 대표의 추모사 낭독, 49재 예식, 헌화식, 추모곡 제창, 추모 풍선 날리기 등의 순으로 치러졌다.

팬 대표로 추모사를 맡은 홍욱기 씨는 “그와 나눌 이야기와 하고픈 일이 많은데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없다는 것이 아픕니다. 그에게 받은 것들과 빛낸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도갈 수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이어진 49재 예식에선 추모식 내내 의연하게 버티던 고인의 아내 윤원희씨가 눈물을 보여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예식실 앞에는 고인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한 팬들의 긴 줄로 장사진을 이뤘다.

예식실에서 작별 인사를 한 팬들은 고인의 유해가 안치된 납골당 앞에 헌화하며 다시 한번 고인과 작별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후 추모관 내 하늘중앙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민물 장어의 꿈’을 합창했다. 고인이 “내 장례식장에 올려 퍼질 곡이고 노래 가사는 내 묘비명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곡이다. /연습뉴스



유토피아추모관에서 열린 고(故)신해철 49재 추모식.